

태국군부의 정치개입 원인에 관한 고찰

서 경 교*

목 차

- I. 서론
- II. 군부의 정치개입에 관한 이론적 고찰
- III. 태국군부의 정치개입 원인
- IV. 결론

I. 서론

태국군은 19세기 말 라마4세 몽곳(Mongkut)과 그의 아들인 라마5세 쥘라롱껀(Chulalongkorn) 하에서 근대화되었다. 따라서 근대화된 조직으로서의 태국군은 절대왕정의 보호 아래 설립되었고 1932년 이전까지의 태국군의 권위와 재정은 전적으로 왕실에 의존되어 있었다.¹⁾ 그러나 1932년 태국군부의 정치개입 결과로 수세기 동안 지속되어온 절대군주제가 폐지되었고, 그 이후로 태국군부는 정치에 깊이 관여하여 태국정치를 주도하게 되었다.

1932년 절대군주제의 붕괴로부터 1992년까지 총 17번의 군부 쿠데타가 시도되었으며, 그 중 10번의 쿠데타가 성공하였다.²⁾ 이러한 통계는 1932년

*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사

1) 태국군의 발전에 관한 더욱 자세한 것은 Barbara Leitch LePoer (ed.) *Thailand: A Country Study*. Sixth Edition (Washington D.C.: U. 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89), pp.240-242; Chai-Anan Samudavanija and Suchit Bunbongkarn, "Thailand" in Zakaria Haji Ahmad and Harold Crouch (eds.), *Military-Civilian Relations in South-East Asia* (Singapore: Oxford University Press, 1985), pp.111-112; D. A. Wilson, *Politics in Thailand*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62), pp.167-172 참조.

2) 총 17번의 쿠데타 중 1932-1981에 발생한 15번의 쿠데타에 관해서는 David

이후 약 평균 3년 반마다 쿠데타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태국군부의 빈번한 정치개입 양상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다른 통계에 의하면 1932년에서 1992년까지 60년 중 80%에 해당되는 기간동안 태국군부는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태국을 통치해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³⁾ 따라서, 쿠데타의 빈도수에서 뿐만 아니라 총 통치기간에 있어서도 태국군부는 과거 정치에 개입하였거나 혹은 현재 개입하고 있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군부들과는 구별되는 특성을 갖는다고 하겠다.

이와같이 태국정치에서의 군부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군부와 정치와의 관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는 태국정치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먼저 군부와 정치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태국군부는 왜 그렇게 빈번히 정치에 개입하였을까? 어떠한 요인들이 태국군부의 정치개입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을까?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먼저 군부의 정치개입에 관한 일반적인 이론들을 살펴보고, 그것에 기초하여 1932년 이후 태국에서 관찰된 총 17번의 쿠데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경우로 생각되는 1932, 1947, 1957, 1976, 1991년등 다섯 차례의 쿠데타를 대상으로⁴⁾ 그 발생원인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II. 군부의 정치개입에 관한 이론적 고찰

많은 학자들이 군부의 정치개입은 개발도상국들의 한 특징이라고 주장하

Morell, "The Political Dynamics of Military Power in Thailand," in Edward A. Olsen and Stephen Jurika, Jr., (eds.) *The Armed Forces in Contemporary Asian Societies* (Boulder: Westview Press, 1986), p.141의 표를 참조. 나머지 두 번의 쿠데타는 1985년과 1991년에 각각 발생하였다.

3) Clark D. Neher, "Political Succession in Thailand," *Asian Survey*, Vol. 32, no. 7 (July 1992), p.586

4) 이 다섯 번의 쿠데타는 정권의 급진적인 변화를 초래하였다. 1932년의 쿠데타는 절대군주제를 붕괴시켰으며, 다른 네 번의 쿠데타는 선거에 의해 성립된 정부를 붕괴시켰다. 그 외에도 다섯차례의 성공한 쿠데타(1933, 1951, 1958, 1971, 1977)가 있었으나, 이들은 군부정권이 그들의 정치권력을 확고히 하려는 친위쿠데타적 성격을 띠는 것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제외시키기로 하겠다.

여왔다. 웰치(Claude E. Welch)는 광범위하면서도 빈번한 군부의 정치개입은 대부분의 개발도상국가들의 현실이라고 지적하였다.⁵⁾ 파이너(S. E. Finer) 역시 군부의 정치개입이 개발도상국가들에만 한정된 현상은 아니지만, 신생 개발도상국들이 군부 정치개입의 주요 희생자라고 설명하였다.⁶⁾

이와같이 선진국에서보다 더욱 빈번히 나타나고 있는 개발도상국의 군부 정치개입원인에 관하여 많은 학자들의 연구가 있었으며, 그 결과 크게 두 가지의 요소가 군부 정치개입의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사회적(환경적 혹은 유인)요인과 군내부적(혹은 촉발)요인이 그것이다.

1. 사회적(유인) 요인

군부의 정치개입을 설명하는 사회적 요인은 다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사회적 요인이 군부의 정치개입을 유도한다고 강조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국내의 정치적 환경이 군부 정치개입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한다. 즉, 미약하고 비효율적인 민간인 주도의 정치가 군부 정치개입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것이다.

군부의 조직과 구성원들이 정치화되는 범위는 민간인 정치조직의 취약성과 그 나라가 당면한 기본적인 정치적 문제들에 대응하는 민간인 정치지도자들의 무능함에 의해 결정된다.⁷⁾

이러한 견해에서는 사회의 정치·제도적 구조가 군부의 정치개입을 유도한다. 따라서 이러한 견해의 기본적인 주장은 안정되고 제도화된 민간정부가 군부의 정치개입을 억제하는 반면, 불안정한 정치적 상황은 군부로 하여금 민간인 우위의 원칙을 무시하고 정치에 개입하도록 허락한다는 것이다.⁸⁾ 또한 민

5) Claude E. Welch, Jr., *No Farewell To Arms?* (Boulder: Westview Press, 1987), p.195

6) 파이너는 선진국의 군부도 정치에 개입한다고 설명하면서, 그 예로 2차 대전 이전의 독일과 일본, 스페인, 동구권 국가들을 들고있다. S. E. Finer, *Comparative Government* (London: Allen Lane The Penguin Press, 1970), p. 532

7) Samuel P. Huntington, *Political Order in Changing Societie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68), p.221

8) Amos Perlmutter, *The Military and Politics in Modern Times: On*

간정부의 무능함 - 부정부패, 경제침체, 사회적 무질서와 폭력 등 - 과 그에 따른 정통성의 약화는 군부 정치개입의 중요한 원인이다.⁹⁾ 국내의 위기상황으로 인한 정치적 공백이나 민간정부의 정권유지를 위한 강제력의 수단으로서 군부에 대한 의존의 증가도 군부의 개입을 유도하는 요소이다.¹⁰⁾

둘째, 사회 경제적 발달의 정도 역시 군부의 정치개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연구에 의하면 사회 경제적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 보다는 낮은 국가에서 군이 정치에 개입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¹¹⁾ 즉, 사회적인 조직이 미약하거나 비조직화되어 있는 경우나 사회적인 행동과 물질적 자원의 동원력이 미약할 때, 이러한 조건들은 군부의 개입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¹²⁾

셋째, 외국의 영향력이나 국제적인 요인들이 군부의 정치개입을 유도하거나 돕는 경우가 있다. “외국 자본주의의 팽창”이나 “제3세계 경제의 국제경제와의 통합”¹³⁾에 의해 국내의 급속한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그 한 예이다. 그러한 급속한 경제성장의 경우 대부분 나타나는 부산물이라 할 수 있는 극심한 빈부의 격차나 국민들의 상승하는 기대수준이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이 없는 정치체제를 마비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러한 위험성을 고려할 때 외국자본가나 정부의 입장에서는 군부가 제3세계 국가들에서의 자신들의 투자를 보호할 안정된 여건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집단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외국 투자가들이나 정부들은 그들의 투자를 보호해주는 권위주의적인 군부정권들에 경제적·군사적 원조를 제공하며, 이러한 원조는 군부의 국내적 입지를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현상은 남미 국가들의 경험에서 사실로 나타났다.¹⁴⁾ 또한 2차 대전 이후 미국의 외

Professionals, Praetorians, and Revolutionary Soldier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77), p.281

9) Eric A. Nordlinger, *Soldiers in Politics: Military Coups and Governments*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Inc., 1977), p.64, 85-92

10) S. E. Finer, *The Man on Horseback: The Role of the Military in Politics*. Second Edition (Boulder: Westview Press, 1988), pp.64-75

11) Welch, *op. cit.*, p.15

12) Perlmutter, *op. cit.*, pp.95-98

13) Harold Crouch, "The Military and Politics on South-East Asia," in Haji and Crouch, *op. cit.*, pp. 297-298

14) Su Zhenxing, "On Latin America's Process of Democratization," *Latin American Perspectives*, Vol. 15, no. 3 (Summer 1988), p.19

교정책도 특정국가에서 군부의 개입을 돕거나 묵인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냉전시기의 미국지도자들은 자유로운 선거에 의해 선출된 좌경성향의 민간정부보다는 쿠데타를 통한 권위주의적 정부라 할지라도 반좌경적인 군부정권을 선호하였다.¹⁵⁾

2. 군내부적 (촉발) 요인

사회적 요인뿐만 아니라 군 내부적인 요인들도 군부의 정치개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첫째, 군부의 조직적 특성이 정치개입의 원인이 된다고 한다. 이러한 주장의 기본적인 입장은 군부의 강력한 조직력 - 군 조직의 통합성, 자율성, 훈련, 위계질서 등 - 이 정치개입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것이다. 즉, 군부가 이러한 조직적 특성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 다른 조직에 비해 쉽게 정치에 개입할 수 있다는 주장이며, 그러한 특성 중에서도 특히 통합적이고 위계질서가 정연한 군부조직의 구조가 정치개입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강조되고 있다.¹⁶⁾

둘째, 군부의 무기소지 역시 정치개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즉, 치명적인 무기로 무장한 군부는 다른 조직들에 비해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용이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¹⁷⁾

셋째, 군인들의 가치관이나 태도는 그들의 정치개입에 영향을 미친다. 조직으로서의 군내부에는 훈련과 교육에 의한 단일화된 가치체계가 존재한다.¹⁸⁾ 군 조직을 지탱하는 기본적 원칙은 “인본주의(humanism)”라기 보다

15) Nordlinger, *op. cit.*, p.9

16) Bengt Abrahamsson, *Military Professionalization and Political Power* (Beverly Hills: Sage Publication, 1972), p.152; Morris Janowitz, *The Military in the Political Development of New Nations: An Essay in Comparative Analysi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4), p.67; Claude E. Welch, Jr. and Arthur K. Smith, *Military Role and Rule: Perspectives on Civil-Military Relations* (North Scituate, MA: Duxbury Press, 1974), pp.13-20; Finer, *op. cit.*, pp.4-8; Nordlinger, *op. cit.*, p.46

17) Janowitz, *op. cit.*, p.27; Nordlinger, *op. cit.*, p.47; Finer, *op. cit.*, p.4, 10

18) Janowitz, *op. cit.*, pp.70-71

는 “민족주의(nationalism)”와 “집단적 자아(collective identification)”로 표현될 수 있다. 또한 군 지도자들은 민간정치조직들 사이의 타협적인 조정과정을 불신하는 경향이 있다.¹⁹⁾ 더욱이 대부분의 신생국가에서의 군 교육은 장교들의 국내정치에 대한 개입경향을 강화시키는 경우가 많으며,²⁰⁾ 특별히 군 장교들의 민간정치에 대한 불신의 태도는 그들의 정치개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하겠다. 노드링거(Eric A. Nordlinger)에 의하면, 보통 군 장교들은 정치적 질서의 유지는 강조하는 반면, 민간 정치인들의 정치적 활동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고 한다.²¹⁾ 따라서 사회적 무질서를 초래하는 정치적 활동이 민간정부에 의해 효율적으로 통제되지 못할 때 군부를 정치로 개입시키는 원인제공이 된다고 하겠다. 그 외에도 군 장교들이 그들 스스로가 민간인들보다 더욱 우수하고 역량있는 지도자라고 느끼는 군부의 자부심 역시 정치개입에 영향을 주는 요소이다.²²⁾

내재, 군부의 물질적 혹은 집단적 이익 역시 정치개입의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파이너에 의하면 국가적, 계급적, 집단적, 지역적, 개인적 이익이 군부 정치개입의 배후에 작용하는 다섯 가지의 동기라고 한다. 그 중에서도 군 예산이나 군의 자주성과 연관된 “집단적 이익”이 “군 개입의 강력하고 빈번한 동기”로 지적되고 있다.²³⁾ 따라서 군부는 민간 정치인들이 군의 이익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소홀하다고 생각될 때 집단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정치개입을 시도할 수 있다.

이상이 군부의 정치개입을 설명하는 두 가지의 중요한 요소인 사회적(유인) 요인과 군내부적(촉발) 요인에 대한 설명이었다. 이 두 가지의 요인 중 어느 요인에 더욱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군부 정치개입의 원인을 설명하는 세 가지의 서로 다른 접근 방법으로 구별된다. 그 첫째가 사회적 접근방법(the social approach)으로서 이는 군부 정치개입의 중요원인을 사회적 요인에서

19) *Ibid.*, p.44, 66

20) *Ibid.*, pp.61-63

21) Nordlinger, *op. cit.*, pp.54-58

22) Finer, *op. cit.*, pp.54-62

23) *Ibid.*, pp.224-240

찾는다. 헌팅톤(Samuel P. Huntington)이 이러한 접근방법의 대표적인 학자이며, 그는 군부의 정치개입이 단지 “저개발 국가들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사회적 집단과 조직들의 일반적인 정치화 현상의 한 구체적인 표면화”에 불과하다고 설명한다.²⁴⁾ 따라서, 사회적 접근방법은 군부의 정치개입이 군외부적인 - 다시 말해서, 사회적인 - 요인에 기인한다고 본다.

반대로 군사적 접근방법(the military approach)은 군 내부적 요인들이 군부 정치개입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강조한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군부의 조직적인 특성이나 교육, 훈련 등이 군부의 정치개입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며, 또한 군부의 신념체계나 집단적 이익이 국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군은 정치적으로 객관적이거나 중립적인 위치를 유지할 수 없다고 본다.²⁵⁾ 따라서, 민간 정치인들의 견해나 이익이 그들의 견해나 이익과 상충될 때 군부는 서슴없이 민간인 우위의 원칙을 무시하고 정치에 개입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기본적으로 사회적 접근방법이 군부 정치개입의 중요원인을 군외부적인 사회적 여건에서 찾으려고 하는 반면, 군사적 접근 방법은 그 원인을 군부의 조직적 특성등과 같은 군내부적 요소에서 찾으려 한다.

셋째로 사회-군사적 접근방법(the socio-military approach)은 사회적 요인과 군사적 요인 모두가 군부 정치개입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본다. 다시 말해서, 사회적 요인과 군내부적 요인이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상황과 군부조직의 특성 등이 상호복합적으로 군부 정치개입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²⁶⁾

이상의 접근방법이 태국에서 관찰된 다섯차례(1932, 1947, 1957, 1976, 1991)의 군부 정치개입의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다음 장에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24) Huntington, *op. cit.*, p.194

25) Abrahamsson, *op. cit.*, p.17; Janowitz, *op. cit.*, pp.27-29

26) Perlmutter, *op. cit.*, p.x; Nordlinger, *op. cit.*, pp.96-100; Finer, *op. cit.*, p.224

Ⅲ. 태국 군부의 정치개입 원인

1. 1932년 쿠데타의 배경과 원인

절대군주제를 붕괴시킨 1932년 6월의 쿠데타 이전까지 태국 정치체제의 정통성은 국왕을 중심으로 유지되었으며, 왕과 왕실은 정치권력의 핵심이었다.²⁷⁾ 절대군주제하에서 태국 군부는 서구의 지대한 영향을 받았다. 19세기 후반 라마 5세의 통치하에서 태국군의 장교들은 교육을 받기 위해 유럽의 군사학교들로 보내졌다. 그러나, 태국군의 장교들은 유럽에서 근대적인 군사적 전술 뿐만 아니라 태국내에서 강화되고 있는 왕족들에 의한 권력의 독점과는 상반되는 새로운 정치적 제도와 사회적 사상에 접하게 되었다.²⁸⁾ 그 결과로서 유럽에서 교육을 받은 군장교들을 중심으로 태국군의 근대화와 전문화의 정도는 높아졌으나, 동시에 왕권을 중심으로하는 전통적인 지배계층에 대한 군장교들의 반감 역시 점차로 증가하였다고 하겠다.

물론 절대군주제에 대한 비판의 시각은 군 장교들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라마 5세(1868-1910)때부터 시작된 해외 유학생의 파견은 왕족 및 귀족의 자녀들, 고급관료, 군장교들 뿐 아니라 점차로 평민의 자녀들에게까지 확대됨으로써 20세기에 들어와 해외 유학생들의 숫자는 급증하였다. 따라서, 해외 유학을 통해 서구식 민주주의에 접한 유학생들은 점차로 절대군주제의 통치형태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갖게 되었다.²⁹⁾

또한 20세기에 들어와 절대군주제의 정통성은 태국 왕실의 재정난으로 더욱 약화되기 시작하였다. 라마 5세때부터 누적된 과다지출로 인한 왕실의 재정난은 라마 6세(1910-1925)를 거쳐 라마 7세(1925-1935)로 왕권이 계승되면서 더욱 악화되었다. 더욱이 1930년대 초 세계적 경제공황에 직면한

27) David Morell and Chai-Anan Samudavanija, *Political Conflict in Thailand: Reform, Reaction, Revolution* (Cambridge: Oelgeschlager, Gunn & Hain, Publishers, Inc., 1981), p.4

28) Wilson, *op. cit.*, pp.172-173; LePoer, *op. cit.*, p.241

29) 김홍구, "태국 왕권의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태국학회논총』, 제 4 호 (1991), p.107

라마 7세는 심각한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지출을 감소하고 관료들을 감축하였다. 그 결과로서 1930년대 초 태국군부의 국방예산도 삭감되었으며 군장교들의 감축도 단행되었다.³⁰⁾ 그러나, 태국 왕실은 여전히 심각한 재정난을 극복하지 못한 채 오히려 군부와 민간인 반대세력의 불만만 더욱 고조시킨 결과를 초래하였다.

결국 1932년 6월 유럽에서 교육을 받은 군장교 그룹이 민간관료와 함께 무혈 쿠데타를 일으켜 수 세기동안 지속되어온 절대군주제를 종식시키고 입헌군주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1932년 쿠데타의 발생원인은 크게 세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는 태국왕실의 재정난과 그에 따른 국방예산 삭감, 군장교의 감축 등이 군부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위협하였다는 것이다. 왕실에 그들의 재정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던 군부의 입장에서는 왕실이 그들의 이익을 제대로 보호해 주지 못한다고 느끼자 정면으로 반기를 들어 왕권에 도전한 것이다. 둘째는 해외 유학을 통하여 서구식 민주주의에 접한 군장교를 포함한 엘리트계층의 절대군주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의 증대였다. 유럽에서 접한 새로운 정치제도와 사회적 사상은 절대군주제 하에서 성장한 그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였으며, 절대군주제와의 비교를 통해 후자에 대한 비판적 시각으로 정치적 개혁에 대한 욕구가 팽배했었다고 하겠다. 셋째, 누적되어온 재정난을 효율적으로 타개하지 못한 왕실의 무능함과 더불어 1930년대 초 세계적인 공황으로 인한 경제상태의 악화 역시 1932년 쿠데타의 배경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요약하면, 1932년 쿠데타의 배경요인은 사회적 요인(재정난, 왕실의 무능함)과 군내부적 요인(군부의 이익보호, 가치관/태도의 변화)이 함께 작용하였다. 그러나 쿠데타의 주도세력이 유럽에서 교육받은 군장교 및 민간관료 집단이었다는 점과 그들이 절대군주제에 대한 비판적 의식에서 태국정치의 개혁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볼 때, 1932년 쿠데타의 직접적인 원인은 사회적 요인이라기 보다는 군내부적 요인으로 파악할 수 있겠다.

30) *Ibid.*, pp.106-107; Wilson, *op. cit.*, pp.12-13

2. 1947년 쿠데타의 배경과 원인

1932년 이후 2차대전 말까지 1932년 쿠데타의 대표자들이³¹⁾ 태국 정부를 주도하였다. 그러나, 2차 대전 말기에 태국의 전시 동맹국이었던 일본의 패색이 짙어가자 1938년 이후로 태국을 다스려 왔던 피분(Phibun Songgram)정부는 그 권력기반이 점점 약화되었다. 마침내 1944년 피분은 수상직에서 물러나게 되었고, 1932년 이후 처음으로 민간인 주도의 정부가 쿠엥(Khuang Aphaiwong)을 수상으로 성립되었다.³²⁾

그러나, 종전후 민간정부하에서의 태국정치는 매우 불안정하였다.³³⁾ 1945년 8월에서 1947년 11월 사이에 8번의 내각개편이 있었고 수상이 5차례 바뀌었다. 2차 대전 이후 민간정부의 가장 영향력있는 실권자는 뿌리디(Pridi Phanomyong)였다. 그는 1932년 쿠데타의 민간인 대표자였으며 1938년 이후 피분정부의 2인자였으나, 일본과의 동맹정책에 반대하여 전쟁 중 지하항일조직을 결성하여 피분정부의 정책에 대항하였다. 또한 그는 1944년 의회에서 피분에 대한 불신임안을 가결시켜 수상직을 사임토록 하는 데 배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전후 민간인 지도자들은 단결되지 못하였다. 그들 사이의 파벌다툼으로 정치적인 분열이 조성됨으로써 민간정치인들은, 잠시 세력이 약화되었으나 1932년 쿠데타이후로 강력한 정치력을 행사해 온 군부에 대항할 만한 세력으로 성장하지 못하였다. 게다가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난국은 민간정부를 더욱 약화시켰다.

그러한 상황에서 민간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1946년 3월

31) 1932년 쿠데타의 중심인물은 뿌리디(Pridi Phanomyong), 피분(Phibun Songgram), 프라야(Phaya Phayon) 등이었다.

32) 1932년 쿠데타 이후 1944년 민간정부 수립까지의 자세한 내용은 John H. Esterline and Mae H. Esterline, *How the Dominoes Fell: Southeast Asia in Perspective* (Lanham and London: Hamilton Press, 1986), 동남아정치연구회역, 『동남아정치입문』 (박영사, 1991), pp.327-333 참조

33) LePoer, *op. cit.*, pp.30-32; Chai-Anan Samudavanija, "Thailand: A Stable Semi-Democracy," in Larry Diamond, Juan J. Linz, and Seymour M. Lipset (eds.) *Democracy on Developing Countries Volume 3: Asia*, (Boulder: Lynne Rienner Publishers, 1989), pp.309-310

쁘리디가 직접 수상직을 맡았다. 그는 민심을 수습하고 군부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1946년 5월 헌법을 개정하고 총선을 치루었다. 그러나, 정치·경제적인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더 악화되었다. 더욱이 1946년 6월 아난타 국왕의 피살사건으로 뿌리디의 정치적 생명은 위기에 처하였다.³⁴⁾ 1946년 8월 뿌리디는 수상직을 사임하고 그의 심복인 탐롱(Thamrong Nawasawat)이 수상직을 이어 받았다.

한편, 2차 대전 이후 정치적 영향력이 크게 약화된 피분을 중심으로 하는 군부세력은 그들의 정치적 권력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전후 정치적 불안정과 경제적 난국에 대해 군부는 민간정부의 무능함 때문이라고 공격하였으며, 연합국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전쟁피해 보상정책이 국익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였다고 비난하였다.

이렇게 민간정부의 무능함을 맹렬히 비난하며 기회를 엿보던 피분을 중심으로 하는 군부는 1947년 11월 마침내 선거에 의해 선출된 민간정부를 전복시키고 정치권력을 재장악하였다. 기본적으로 1947년의 쿠데타는 피분을 중심으로 한 군부세력의 뿌리디에 의해 주도되는 의회중심의 민간인 그룹에 대한 반작용이었다고 볼 수 있다.³⁵⁾ 그러한 쿠데타를 용이하도록 만든 배후의 요인으로는 민간 정치인들 사이의 파벌다툼, 전쟁휴우증으로 인한 경제적 위기와 사회적 불안정, 범죄율의 증가, 아난타 국왕의 의심스러운 죽음, 이러한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처리하지 못한 민간정부의 무능함을 들 수 있다.

따라서, 1947년의 쿠데타는 그들의 정치권력을 회복하려는 군부의 정치적 야심이 그 주된 원인이었다. 1932년의 쿠데타가 서구 민주주의에 접한 군장교들과 민간관료들이 절대군주제의 병폐에 대항하여 연합전선을 편 쿠데타라면, 1947년의 쿠데타는 종전후 정치적 권력이 약화된 군부가 그 집단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의회중심의 민간 정치인들을 권력으로부터 소외시킨 사건이라 하겠다. 흥미로운 것은 1932년 쿠데타의 공모자였던 피분과 뿌리디가 1947년의 쿠데타에서는 권력을 뺏고 빼앗기는 적대관계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34) 당시 20세였던 어린 국왕의 죽음은 타살의 의혹이 짙은 사건이었으나, 뿌리디의 지지부진한 사건처리와 또 그 자신이 국왕의 피살에 개입되었을 지도 모른다는 소문은 그의 정치적 명성을 치명적으로 약화시켰다.

35) Wilson, *op. cit.*, p.177

요약하면, 1947년의 쿠데타는 군부의 정치권력을 회복하기 위한 야심(군내부적 요인)이 국내의 정치, 경제, 사회적 여건(사회적 요인)에 힘 입어 그 목적을 달성한 것이었으며, 따라서 1932년의 쿠데타와 마찬가지로 군부의적인 환경적 요인보다는 군부의 정치적 야심과 연관된 군내부적 요인이 직접적인 군부 정치개입의 원인이었다.

3. 1957년 쿠데타의 배경과 원인

1947년 쿠데타의 결과로 피분이 이끄는 군부가 정치권력을 재장악하였으나, 피분의 권력기반은 예전처럼 강력하지 못하였다. 그 증거로서 1948년에서 1951년 사이에 피분의 권력을 위협하는 세 차례의 쿠데타 음모와 시도가 있었으며,³⁶⁾ 이는 군부내의 피분의 위치가 약화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그의 정치권력에 대한 도전을 경험하면서 피분은 그의 정치적 생존을 위해 경찰의 수장이었던 파오(Phao Siyanan)장군과 1949년의 쿠데타를 진압했던 짜릿(Sarit Thanarat)장군과 권력을 공유하게 되었다. 이러한 군부의 권력공유체제는 1951년의 쿠데타를 진압하면서 그 기반을 확고히 하게 된다.³⁷⁾

또한 1951년 이후 태국군부는 정치 뿐만 아니라 경제분야에도 깊숙히 관계하였다. 그러나, 군부의 국내 기업활동에의 관여는 파오장군과 짜릿장군을 중심으로 한 두 경쟁그룹간의 심각한 분열을 초래하였다.

반면, 이러한 파오와 짜릿간의 분열은 피분으로 하여금 두 사람의 경쟁관계를 이용하여 그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³⁸⁾ 나름대로 권력공유체제하에서 자신의 권력기반에 자신감을 얻은 피분은 1955년 국민들에게 자신의 “개방된 정부”를 비판하도록 고무하는 이른바 민주화 정책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는 진정한 민주적 제도의 발달을 위해서라기 보다는 짜릿과 파오를 견제하며,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여 그의 권력을 공고히 하려는 것이었다.

36) 동남아정치연구회, 앞의 책, p.335 참조

37) Samudavanija, *op. cit.*, pp.310-311

38) *Ibid.*, p.311; LePoer, *op. cit.*, p.34

민주화 정책으로 인하여 정당결성이 허용되고, 정치적인 자유가 신장되었으며, 1957년 2월에는 총선이 실시되었다. 총선에서 파오장군이 이끄는 정부여당이 간신히 다수의석을 차지하여 3월에 새 정부를 구성하였다. 그러나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의 불만은 연속된 반정부 시위를 일으켰으며, 싸릿장군 역시 부정선거를 비난하였다. 이러한 국민들의 반발에 대항하여 피분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민주화 정책을 무산시켰다. 그 결과 피분은 민주화를 통해 국민의 지지기반을 확고히 하려던 처음의 의도를 달성치 못하였을 뿐 아니라, 군부내의 자신의 지지기반을 더욱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³⁹⁾

1957년 싸릿은 무혈쿠데타를 주도하여 피분정부를 전복시키고, 피분과 파오를 축출하였다. 쿠데타 그룹은 정부관리들의 부패와 국가안보에 대한 공산주의의 위협을 쿠데타의 이유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파오장군과 그 파벌 세력을 제거하려는 싸릿장군의 의도가 그 뒤에 숨겨진 쿠데타의 직접적 동기였다.⁴⁰⁾ 또한 2월의 총선 이후 지속되어온 정치적 불안 역시 피분정부에 반기를 든 쿠데타 그룹의 행동을 정당화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므로 1957년 쿠데타의 가장 큰 원인은 1947년 이후로 피분과 함께 권력을 공유해 온 싸릿과 파오간의 권력다툼이었다 하겠다. 1947년의 쿠데타는 민간정치인들에 대항한 군부의 집단적 행동이었던 반면, 1957년의 경우는 군내부 파벌간의 알력이 심화되면서 정치권력을 장악하고 반대파벌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1957년의 쿠데타는 비록 당시의 불안정한 사회여건(사회적 요인)이 쿠데타의 성공에 간접적인 도움을 주기는 하였으나, 직접적인 쿠데타의 원인은 군내부의 권력다툼과 군부내 파벌의 이익보호(군내부적 요인)를 위한 것이었다.

4. 1976년 쿠데타의 배경과 원인

1957년의 쿠데타 이후 1973년까지 태국군부는 심각한 도전없이 정치를

39) LePoer, *op. cit.*, pp.36-37; Samudavanija and Bunbongkarn, *op. cit.*, p.110

40) Samudavanija and Bunbongkarn, *op. cit.*, pp.85-86

주도하였다. 그러나 1973년 학생주도의 시위는 1947년 이후 26년간 지속되어 온 군부통치를 종식시키고 민간정부의 복귀를 가져왔다. 1973년 민간통치가 다시 시작되자 민간정치인들은 과거의 교훈을 되살려 군부에 대항하여 서로 연합함으로써 민주적인 정부의 원활한 운영을 다짐하였다.⁴¹⁾ 새 정부는 1974년 10월 민주적인 새 헌법을 공포하였으며, 1975년 1월에는 총선이 실시되었다.

그러나 1975년의 총선은 여전히 분열된 양상을 보이는 민간정치인들의 상황을 증명하는데 불과하였다. 42개의 정당이 총선에서 경쟁하였으며, 어느 당도 의회의 다수의석을 차지하지 못하였다.⁴²⁾ 1975년 2월에서 1976년 10월 사이 3차례나 연립내각이 구성되었지만, 그 어느 내각도 안정된 민주화의 추진에는 성공하지 못하였다.

26년간의 억압적인 군부통치후에 주어진 민주적인 상황하에서 쏟아져 나오는 국민의 요구와 성숙한 정치적 제도나 경험의 결여는 미약한 민간정부의 짐을 가중시킬 뿐이었다. 실제로 당시의 민주적 통치하에서의 정치적 참여는 무정부상태에 가까웠다. 1973년에서 1976년 사이 태국에서는 1,333건의 스트라이크와 322건의 시위가 있었다.⁴³⁾ 그러나 미약하고 분열된 민간정부는 폭력이 만연하는 무질서한 상황을 바로 잡을 능력이 없었다.

한편, 군부내의 보수파들은 학생시위의 성공과 점증하는 노동자와 농민조직들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었다. 그들은 당시의 혼란한 상황하에서 좌익성향의 정부가 구성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불안해 하였으며 좌익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우익단체들을 지원하였다.⁴⁴⁾ 그 결과 좌익 학생·노동자와 우익 무장단체간의 정치적인 암살과 폭력이 난무하였으며, 좌우익간의 정치적 긴장상태는 1976년 10월의 유혈사태로 그 극에 달하였다.⁴⁵⁾

민주화 기간동안 극단적인 이념적 대립 이외에도 군부를 불편하게 하는 다른 요소가 존재하였다. 군부의 주장에 의하면 민간정부가 군부의 물질적 권

41) Neher, *op. cit.*, p.592

42) LePoer, *op. cit.*, p.44

43) Morell and Samudavanija, *op. cit.*, p.251

44) Charles F. Keyes, *Thailand: Buddhist Kingdom as Modern Nation-State* (Boulder: Westview Press, 1987), pp.90-94

45) LePoer, *op. cit.*, pp.47-48

익의 보호에 소홀하였다는 것이다. 즉 정부가 미군기지의 철수를 명령함으로써 미국의 태국에 대한 군사원조의 감축을 초래하였다는 것이다.⁴⁶⁾ 그 뿐만 아니라 남베트남과 라오스, 캄보디아가 1975년 공산치하에 들어가게 되자 태국군은 태국정부도 공산주의자들의 손에 들어갈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긴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국내외적으로 복합적인 상황에서 태국군부는 1976년 10월 태국 역사상 가장 피를 많이 흘린 유혈 쿠데타를 통해 정치권력을 재탈환하였다. 그러나, 대부분 국민들의 쿠데타에 대한 반응은 혼란스러운 의회 민주주의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군부독재를 선호한다는 태도였다.⁴⁷⁾

1976년 쿠데타의 발생요인을 정리해보면 첫째, 1973년에서 1976년까지의 민간통치 기간중의 혼란하고 불안정한 정치·사회적 상황을 들 수 있겠다. 폭발하는 국민의 요구와 좌우익간의 폭력과 암살을 수반한 극한 대립상황은 무정부상태에 가까운 혼란을 조장함으로써 군부의 정치 재개입의 구실을 제공하였다. 둘째, 미약한 민간정부의 통치능력의 한계 역시 군부의 재개입을 허용한 요소였다. 1932년 이후 1973년까지 불과 3년간의 통치경험을 가졌을 뿐 아니라 그들 스스로도 분열된 양상을 보이던 민간정치인들은 산적해 있는 정치적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함으로써 사태는 더욱 악화되었고 결국은 군부의 재개입을 허용하였다. 셋째, 국외적인 요인으로는 주변의 베트남과 라오스, 캄보디아가 1975년 공산화됨으로써 국내의 성장하는 좌익세력의 움직임과 함께 군부를 중심으로 하는 우익세력들의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넷째, 민간통치 이전과 비교해 소홀해진 정부차원의 군부이익에 대한 배려 역시 군을 자극함으로써 정치 재개입의 동기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1976년 쿠데타의 원인으로는 사회적 요인과 군내부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으나 앞에서 살펴 본 세번의 쿠데타와는 달리 군부의적인 환경적 요인 - 폭력, 암살등의 사회적 무질서, 민간정치인들의 분열, 주변국의 공산화 등 - 이 군부이익 보호등의 군내부적인 요인보다 직접적인 쿠데타의 요소로 작용하였다 하겠다.

46) Crouch, *op. cit.*, p.291

47) Morell and Samudavanija, *op. cit.*, pp.251-252

5. 1991년 쿠데타의 배경과 원인

1976년 10월 군부가 정권을 재장악한 후 태국정치는 1973년 이전의 권위주의적인 상태로 되돌아갔다. 그러나 1980년 3월 쁘렘(Prem Tinsulanonda)장군이 끄리앙삿(Kriangsak)의 뒤를 이어 수상직을 승계하면서 “개방된 정치”를 향한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정치적 변혁이 시작되었다. 쁘렘 자신도 군출신이었으나 그는 다른 군출신 수상들과는 달리 그의 내각에서 민간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 그들이 안정되고 민주적인 정치제도를 발전시키도록 격려했다.⁴⁸⁾ 그러한 열린 정치를 향한 노력의 결과로 1988년 3월, 1973년에서 1976년의 민간통치 이후로 최초의 정당출신 민간인 수상인 찻차이(Chatichai)가 쁘렘을 이어 수상직을 승계하였다. 1988년의 이러한 평화적인 정권이양으로 태국에 안정된 의회민주주의가 정착되어 가고있다는 믿음이 확산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1988년에서 1991년 초까지 대부분의 태국국민들은 쿠데타를 통한 정권의 탈취는 이미 구시대의 유물이라고 굳게 믿었다. 그러나 1988년 3월 찻차이 정권의 출범은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찻차이정권 역시 과거 쁘렘정권과 마찬가지로 연립정권이 갖는 고질적인 문제점들을 안고 있었으며, 각료의 임명에서도 경제요직에 부유한 사업가들과 은행가들을 임명함으로써 정치적 부패와 편파주의의 가능성에 대한 비판에 접하였다.⁴⁹⁾ 그러한 부정부패에 대한 가능성은 후에 현실로 나타났다. 찻차이정권은 대중에 기반을 둔 민주적인 개혁의 추진을 약속하였으나, 그와는 달리 대기업들의 이익을 보호하기에 급급하다는 인상을 국민들에게 주었으며 정부관료들의 부정부패 역시 그 정도가 심화되어 가고 있었다.

그러나 찻차이정권의 군부와의 관계는 비교적 원만하게 시작되었다. 특히 쁘렘정권 말기에 정권을 위협하는 세력으로 알려졌던 차왈릿(Chaovalit) 장군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였다.⁵⁰⁾ 이러한 관계는 차왈릿장군이 총사령

48) LePoer, *op. cit.*, pp.49-50

49) Larry A. Nicksch, "Thailand in 1988: The Economic Surge," *Asian Survey*, Vol. 29, no. 2 (February 1989), p.168

50) *Ibid.*, p.169

관과 참모총장의 직위를 사임하고 찻차이내각에 입각한 얼마 후에 금이 가기 시작하여, 찻차이와 군지도자들의 관계가 소원해지기 시작하였다.⁵¹⁾ 그 이후로 양측의 쌍방에 대한 불신으로 인하여 군부와 찻차이정권과의 관계는 점차 긴장된 관계로 바뀌어갔다.

군부와 찻차이간의 불편한 관계는 1991년 2월 아뎃(Arthit Kamlangek) 장군이 찻차이내각의 국방차관으로 임명되기 이전까지는 표면화되지 않았었다. 아뎃장군은 당시 군지도층의 주도세력이던 왕립사관학교 5기 졸업생들의 라이벌이었기 때문에 군지도부에게는 그의 국방차관직 임명이 군지도부의 자율성을 통제하기 위한 찻차이의 도전이라고 생각되었다.⁵²⁾

따라서 아뎃의 임명은 군부 지도자들을 직접적으로 자극시킨 결과를 가져왔으며, 총사령관 쏘턴(Sunthorn)과 참모총장 쉐핀다(Suchinda)장군이 주도한 1991년 2월의 쿠데타로 이어졌다. 민주적 선거에 의해 이루어진 찻차이정권을 권력에서 축출하는 쿠데타에 성공한 군부는 정치인들의 심각한 부정부패를 쿠데타의 중요 원인으로 주장하였다. 찻차이정권을 대기업 이익의 보호자로 생각하여 각료들의 부패상에 불만을 가졌던 대부분의 태국국민들도 군부 쿠데타에 대해 강력한 저항없이 묵인하는 태도를 보였다.⁵³⁾

요약하면, 1991년 쿠데타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가장 중요하고 직접적인 원인은 아뎃장군의 국방차관직 임명이었다. 즉, 군지도층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찻차이 수상이 아뎃을 임명하자, 그때까지 표면화되지 않고 있던 군부와 찻차이간의 갈등이 군부의 직접적인 행동으로 구체화된 것이 1991년 2월의 쿠데타라고 하겠다. 군지도부는 자신들의 의사를 무시하였을 뿐 아니라 적대관계에 있는 아뎃장군을 통하여 찻차이가 그들을 견제하려 한다고 판단하고 찻차이에게 정면으로 반기를 든 것이다. 그러므로 1991년 쿠데타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군지도부의 찻차이에 대한 불만과 동시에 그들의 집단적 이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이었다. 둘째, 찻차이정권이 출범시

51) 군과 찻차이와의 관계악화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Scott R. Christensen, "Thailand in 1990: Political Tangles," *Asian Survey*, Vol. 31, no. 2 (February 1991), pp.197-198 참조

52) Suchit Bunbongkarn, "Thailand on 1991: Coping with Military Guardianship," *Asian Survey*, Vol. 32, no. 2 (February 1992), pp.132-133

53) Neher, *op. cit.*, p.596

약속했던 민주적 개혁과 범국민적 권익신장에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대기업의 이익보호에 열중하였으며, 또한 각료들이 정치적 권력을 이용하여 사리사욕을 추구함으로써 국민들의 지지기반을 잃었고 불평과 불만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 또 다른 원인이었다. 셋째, 찻차이의 군지도부에 대한 파소평가와 안일한 생각이 그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찻차이는 개인적으로 군의 쿠데타 유발 가능성에 대하여 심각한 고려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그 이면에는 쿠데타라는 수단을 통한 정권획득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는 안일한 판단이 있었던 것 같다. 그 증거로서 제시할 수 있는 것이 군지도부의 의견을 묵살한 아뎃장군의 국방차관직 임명이었다. 그러므로 1991년 쿠데타의 직접적인 동기는 군내부적 요인이었으며, 사회적 요인 역시 쿠데타의 발생에 간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IV. 결 론

지금까지 살펴 본 다섯 차례 쿠데타의 발생배경과 원인을 중심으로 태국 군부의 정치개입 원인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섯 번의 쿠데타 모두에 사회적 요인과 군내부적 요인이 함께 그 발생원인으로 존재하였다.

둘째, 두 가지의 요인 중 1976년 쿠데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군내부적 요인이 사회적 요인에 비해 직접적인 군부개입의 원인이었다. 1932년의 쿠데타는 유럽에서 교육받은 군장교들을 중심으로 한 엘리트 계층의 절대군주제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의 성장과 함께 1931년에 있었던 국방예산 삭감과 군장교의 감축이 직접적인 군부 정치개입의 동기였다. 1947년의 쿠데타는 1944년 이후 민간정치인들에게 정치의 주도권을 빼앗긴 피분중심의 군부세력이 이전의 권력을 회복하려는 정치적 야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1957년의 쿠데타는 1951년 이후 피분과 함께 권력공유체제를 유지하던 싸릿과 파오간의 권력다툼이 심화되면서 싸릿이 파오와 그 파벌을 제거하기 위해 일으킨 쿠데타로서 군내부의 분열과 권력경쟁이 그 직접적 원인이었다. 1991년의 쿠데타 역시 찻차이정부가 군과 관련된 각료의 임명에 군지도부의 의견을 무시하였을 뿐 아니라 군지도부의 라이벌을 군 요직에 포석하여 군부의 자율성을 통제하려

한다는 군부의 견해가 쿠데타의 직접적인 동기로 작용하였다.

셋째, 이러한 군내부적 요인 중에서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왕실이나 민간정부에 대항하여 군부의 집단적 이익(정치권력, 물질적 보상, 군 자율성 등)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가장 빈번하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1932, 1947, 1976, 1991년 경우에 관련된 군내부적 요인 모두가 국왕이나 민간정부의 정책에 대항하는 군부의 이익과 연관되어 있다. 1957년의 경우는 예외로서 군부 대 민간정부의 경쟁관계가 아닌 군내부의 권력분열과 경쟁이 그 원인이었다.

네째, 1976년 쿠데타의 발생원인에서는 다른 네 번의 경우와는 구별되게 사회적 요인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오랜기간 동안의 억압적인 군부통치 후에 주어진 자유로운 정치적 환경이 수반한 정치 사회적 혼란과 불안정, 좌우세력의 극한 대립, 미약한 민간인 정부의 한계성, 주변국가들의 공산화로 인한 국가안보상의 위기감 등이 군부의 정치 재개입을 유발시키는 절대적인 역할을 하였다.

다섯째, 다섯차례 쿠데타의 발생원인으로 나타난 사회적 요인들을 분석해 보면 정치 사회적 혼란과 무질서, 민간 정치인들의 분열, 왕실이나 민간정부의 무능함, 경제적 위기, 정부관료들의 부패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다섯차례 쿠데타의 원인분석에 있어 기존의 분류된 접근방법을 적용한다면 사회-군사적 접근방법이 가장 적절한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각 요소간의 중요성의 정도를 살펴보면 군내부적 요인 요소가 쿠데타의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한 경우가 다섯차례 중 네 차례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정치권력과 연관된 군부의 집단적 이익의 보호가 가장 빈번히 나타난 요인이었다.

결론적으로 다섯차례의 쿠데타에서 살펴 본 태국군부 정치개입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군외부적인 사회적 요인보다도 군내부적인 요인, 더욱 구체적으로 말하면 정치권력이나 물질적 보상, 자율성 등 군의 집단적 이익의 보호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론은 군부의 이익보호와 정치제도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자각에서 비롯된 1932년의 쿠데타 이후로 거의 대부분의 기간동안 태국정치를 주도해 온 군부의 입장과 일치한다고 하겠다. 즉, 태국 군지도자들

은 군부의 정치참여는 필연적이고 자연스러운 귀결이며, 또한 정치적 경험과 연륜에 있어서도 그들이 민간정치인을 능가하는 “정치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비록 1992년 5월의 위기사태 이후 군부의 정치적 위상이 크게 위축되었으며 더이상 무력적인 수단인 쿠데타에 의한 정권탈취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 할 지라도 태국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은 아직도 건재하며 상황에 따라서는 정권에 재도전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홍구. "태국 왕권의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태국학회논총』, 제4호 (1991).
- 동남아정치연구회 역. 『동남아정치입문』. 박영사, 1991.
- Abrahamsson, Bengt. *Military Professionalization and Political Power*. Beverly Hills: Sage Publication, 1972.
- Bunbongkarn, Suchit. "Thailand on 1991: Coping with Military Guardianship." *Asian Survey*, Vol. 32, no. 2 (February 1992).
- Christensen, Scott R. "Thailand in 1990: Political Tangles." *Asian Survey*, Vol. 31, no. 2 (February 1991).
- Finer, S. E. *Comparative Government*. London: Allen Lane The Penguin Press, 1970.
- _____. *The Man on Horseback: The Role of the Military in Politics*. Second Edition. Boulder: Westview Press, 1988.
- Huntington, Samuel P. *Political Order in Changing Societie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68.
- Janowitz, Morris. *The Military in the Political Development of New Nations: An Essay in Comparative Analysi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4.
- Keyes, Charles F. *Thailand: Buddhist Kingdom as Modern Nation-State*. Boulder: Westview Press, 1987.
- Lepoer, Barbara Leitch. (ed.) *Thailand: A Country Study*. Sixth Edition. Washington D.C.: U. 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89.
- Morell, David. "The Political Dynamics of Military Power in Thailand." in Edward A. Olsen and Stephen Jurika, Jr., (eds.) *The Armed Forces in Contemporary Asian Societies*. Boulder: Westview Press, 1986.

- _____ and Chai-Anan Samudavanija. *Political Conflict in Thailand: Reform, Reaction, Revolution*. Cambridge: Oelgeschlager, Gunn & Hain, Publishers, Inc., 1981.
- Neher, Clark D. "Political Succession in Thailand." *Asian Survey*, Vol. 32, no. 7 (July 1992).
- Niksch, Larry A. "Thailand in 1988: The Economic Surge." *Asian Survey*, Vol. 29, no. 2 (February 1989).
- Nordlinger, Eric A. *Soldiers in Politics: Military Coups and Governments*.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Inc., 1977.
- Perlmutter, Amos. *The Military and Politics in Modern Times: On Professionals, Praetorians, and Revolutionary Soldier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77.
- Samudavanija, Chai-Anan. "Thailand: A Stable Semi-Democracy." in Larry Diamond, Juan J. Linz, and Seymour M. Lipset (eds.) *Democracy on Developing Countries*. Boulder: Lynne Rienner Publishers, 1989. Volume 3: Asia
- _____ and Suchit Bunbongkarn. "Thailand," in Zakaria Haji Ahmad and Harold Crouch(eds.) *Military-Civilian Relations in South-East Asia*. Singapore: Oxford University Press, 1985.
- Welch, Claude E. Jr. *No Farewell To Arms?* Boulder: Westview Press, 1987.
- _____ and Arthur K. Smith. *Military Role and Rule: Perspectives on Civil-Military Relations*. North Scituate, MA: Duxbury Press, 1974.
- Wilson, D. A. *Politics in Thailand*.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62.
- Zhenxing, Su. "On Latin America's Process of Democratization." *Latin American Perspectives*, Vol. 15, no. 3 (Summer 1988).